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돌(石) 문화와 造形디자인에 관한 研究

- 동자석(童子石)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金 性 恩

2002年 6月

제주도 돌(石) 文化와 造形디자인에 관한 研究

- 동자석(童子石)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李 起 厚

이 論文을 디자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6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工業디자인專攻

金 性 恩

金性恩의 디자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2年 6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목 차

SUMMARY	V
1.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제주도	3
1. 제주도 형성사	3
2. 자연환경	4
3. 돌 문화	6
1. 역사	6
2. 생활	7
3. 신앙	12
4. 돌 문화와 조형 디자인	14
1. 자연과 문화	14
2. 문화와 조형디자인	15
5. 동자석의 조형디자인 연구	16
1. 동자석의 유래	16
2. 동자석의 배치와 기능	17
3. 동자석의 분류	18
4. 동자석의 조형적 분석	22
6. 조형 제작 연구	26
1. DIRECTION	26
2. CONCEPT	26
3. IDEATION	27
4. DRAWING	31
5. FINAL WORK	32

7. 결론 36

참고문헌 38



사 진 목 차

<사진 1> 지식묘	6
<사진 2> 선돌	7
<사진 3> 환해장성	8
<사진 4> 협자연대	8
<사진 5> 초가	9
<사진 6> 초가	9
<사진 7> 울담	9
<사진 8> 정주목과 정낭	9
<사진 9> 봉애기	10
<사진 10> 돌방애	10
<사진 11> 봉덕	10
<사진 12> 연자매	10
<사진 13> 돌태	11
<사진 14> 듬돌	11
<사진 15> 돌담	11
<사진 16> 돌담	11
<사진 17> 돌하르방	12
<사진 18> 돌하르방	12
<사진 19> 방사탑	13
<사진 20> 방사탑	13
<사진 21> 산담	13
<사진 22> 동자석	13
<사진 23> 제주도의 무덤	17
<사진 24> 동자석(남성과 여성)	18
<사진 25> 동자석(수호신)	19
<사진 26> 동자석(시중꾼)	20
<사진 27> 동자석(기타)	21
<사진 28> 동자석(몸통)	25

표 목 차

<표 1> 제주도 형성사	3
<표 2> 자연과 문화	14
<표 3> 문화와 조형디자인	15
<표 4> 동자석의 조형 분석	22
<표 5> 동자석의 얼굴 분석	24
<표 6> DIRECTION	26



SUMMARY

A Study on the Culture and Formative Design of Jeju Island Stone - Focused on the Dongjaseok(child statue for tomb)

Kim, Seong-Eun
Dept, of Industrial Desig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Lee, Ki-Hoo

Jeju, the largest island in Korea, is famous for its natural attributes. It has unlimited resources and potential as shown in such unique cultural heritage as the Dolhareubang statues, Mount Halla, numerous orum and unique rock formations. The topography of volcanic islands such as Jeju displays many grotesque-looking rocks and leaves stones scattered all about. This unique Jeju trait has resulted in its own stone culture. I believe that the Dolhareubang and Dongjaseok, typical Jeju statues, are valuable historic relics, their designs symbolizing the essence of Jeju stone culture. Above all, the Dongjaseok statues that guard tombs as part of Jeju unique funeral culture are a most unique design that cannot be seen anywhere else.

Through this thesis, I have tried to understand the stone culture of Jeju, how people in Jeju have been using stones in their barren lives, and what their religious beliefs were as well as emphasize the value and possibilities of Dongjaseok by researching their function and design.

As stone statues erected on the front, left or right of tombs facing one other, or standing side by side, the Dongjaseok represent earthly gods who comfort the souls of the dead and guard the burial sites. Childlike stone statues can be seen in Buddhism and in various regions, however, the function of having them guard

tombs is unique to Jeju culture and cannot be found elsewhere.

In regard to the modeling of the Dongjaseok, I have tried to analyze and classify the cultural, formative and material features inherent in a traditional Dongjaseok, and come up with a result by applying a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culture and methodology of the design.

In making the model, I have tried to give more of a feeling of lyricism and intimacy to the Dongjaseok expression, as has been historically expressed as a concept of worship, and also have tried to add a cute and friendly aspect through the use of a simple graphic line, suitable for a child. For the head portion, I used an actual round shaped stone and have tried to express the interconnectivity between man and nature, as well as touching up the shoulder and arms that were expressed in an exaggerated way, and removals of extended expression after adding a receptacle so it can still share in the original meaning.

The overall size of the model was made smaller than existing Dongjaseok to avoid causing any problems in a mass production system with silicon molding. Also the number of set can vary with this model,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a pair. Furthermore, I tried to extend the concept to interior object.

I believe that there is a great significance regarding this research in applying a modern image and developing and distributing a new and unique aspect of Jeju culture, which doesn't follow the routine of traditional culture. It opens the possibility that what is the most Jeju-like could also be what is most Korean and most universal.

As mentioned before, I have tried to present a new cultural format that exhibits various functions, not only one function in a confined area, by reinterpreting and developing the meaning of the Dongjaseok without following the traditional cultural form. I have tried to do my part in contributing to publicizing positive images of our culture through the study of the formative design and culture of these Jeju Island stones.

1. 서론

1. 연구의 배경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한국최대의 섬이다. 아름다운 바다와 한라산, 수많은 '오름'¹⁾들과 기괴한 암석, 돌하르방이라는 독특한 문화유산 등, 제주도는 무한한 자원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2001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국회통과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제주도에서는 국제적인 시야로 제주의 문화를 재 정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의 섬이라는 특성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 독특한 문화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고 있지만 무차별한 개발과 지역주민의 무관심으로 심각한 자연 훼손이 되고 있으며, 독특한 제주도만의 수많은 문화적 유물을 갖고 있으나 도민의 관심 부족과 일제침략, 유물 수집가들로 인해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훼손되고 분실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삼다(三多)'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삼다(三多)'는 바람과 돌, 여자가 많다고 생겨난 말이다. 화산섬이라는 지형은 수많은 기괴한 암석과 지역 곳곳마다 지천으로 돌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상 제주도는 독특한 돌 문화를 이루게 되었다. 주거에서부터 생활과 문화에서도 돌은 곳곳에서 다듬어지고 이용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그 중,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물인 '돌하르방'과 '동자석'은 제주도의 대표적 돌문화의 상징물로서 역사적으로나 조형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본다. 그 중 '돌하르방'은 관광기념품으로 그 역사적 가치와 조형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팔려 가고 있으며, '동자석'은 그 조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도 안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민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외부의 수집가들에 의해 계속 도 외로 밀반출 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매년마다 제주도 공예품을 공모하고 사라져 가는 제주도의 문화유산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상 수공예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단순히 형태의 모방과 저가 재료의 사용 등 저 품질의 기념품을 만들어내는 실정이다.

1)오름 : 제주도 형성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난 뒤 생성된 기생화산을 일컫음

이렇듯이 제주도의 훌륭한 문화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잊혀져 가는 제주의 독특한 돌 문화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조형물을 단순한 형태의 모방이 아닌 제주사람들의 자연에서 받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성과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연구하며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을 한 차원 높이고 제주의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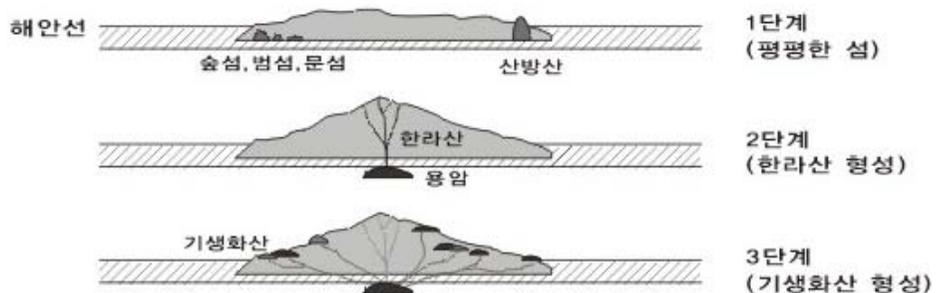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 유산 중 ‘돌하르방’은 이미 그 독특한 제주만의 돌 문화와 조형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돌하르방’의 문헌적 연구와 조형적 연구는 많은 학자와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반면 제주도만의 독특한 장례 문화인 무덤 가에 돌을 쌓아 경계를 두른 ‘산담’과 무덤을 지키는 ‘동자석’은 그 조형성이 독특하고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조형물이다. 수많은 ‘동자석’이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하르방’의 명성에 가려져 ‘동자석’의 그 의미와 조형적 연구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의 돌의 문화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돌을 제주사람들의 척박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여 왔고 어떠한 신앙을 가졌으며, ‘동자석’의 기능과 조형연구를 통해서 그 가치와 가능성을 다시금 새겨보고자 한다.

2. 제 주 도

1. 제주도 형성사

제주도의 형성은 신생대 제3기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암류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이러한 화산활동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지며 첫째 해안저지대의 편평한 지역을 만든 “용암지대 형성단계”, 둘째 “한라산체 형성단계”, 셋째 “기생화산 형성단계”이다. 제주도는 제3기 시대에는 바닷물 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에 화산활동이 시작되어서 편평한 섬이 바닷물 위에 만들어졌고 그 후 화산활동에 의해 현무암질 용암이 대량으로 분출되었다. 많은 양의 용암이 대량으로 흘러나오면서 현재의 해안모양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편평한 순상형이었고 화산활동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다시 분출하는 용암의 양과 성분도 변화하면서 산방산, 범섬, 숲섬, 문섬 등과 같이 윗부분이 둥근 용암돔을 만든 후에 화산활동은 휴식활동에 들어갔다.

다시 화산활동이 시작되고 이때 한라산이 만들어지고 이 화산활동은 주로 섬의 중심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섬 전체를 용기시켰다. 한라산체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전도에 걸쳐서 다시 화산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런 화산활동이 기생화산이 되고 기생화산에 오름이 형성되거나 분지가 되기도 했다.²⁾



<표 1> 제주도 형성사

2) 이문원, 손인석: 「제주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섬일까」, 도서출판 춘광, 1983, p55

제주도의 지형은 개석(開析)³⁾의 정도가 얼마 되지 않아 침식의 영향보다 화산분출의 양상에 의하여 지배되는 화산지형과 화산활동에 수반된 지반의 융기(隆起)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송악산, 일출봉, 당산봉과 같은 해안선 주변의 수중화산구와 한라산 산록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368개에 달하는 기생화산은 특색있는 지형요소이다. 이들 기생화산 즉 소규모의 산봉우리를 제주도에서는 오름이라고 부르며 「악」, 「봉」, 「산」이라 표기하고 있고, 후화산 활동의 산물로서 형성된 이 기생화산들은 화산원 지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유사시대의 화산폭발에 대한 고문헌 기록을 보면 「신동국여지승람」에 서기 1002년과 1007년에 대정현에서 화산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고, 주로 신기의 신선한 화산암류로 섬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 제주도 현무암류의 “검은돌”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선은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해안 곳곳에는 현무암 단애⁴⁾와 현무암초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암석해안에는 조간대 해수면을 따라서 해식대⁵⁾가 잘 발달하고 있다. 제주도의 지질은 신생대 제4기 플라이오세 초기의 해성퇴적층인 서귀포층과 플라이스토세 중기에서 후기에 속하는 성산층, 화순층, 신양리층의 퇴적암층과 현무암, 조면암질안산암, 조면암 등의 화산암류, 기생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쇄설물(송이) 등으로 구성된다. 현무암류는 본도 전면적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자연환경

제주도는 한반도의 남서 해상에 위치하여 본도(부속도서 제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도의 극서 지점인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한장동)126°09' 47"에 놓여 있으며, 위도의 극점은 극남 지점인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33°11' 27"에서 극북 지점인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33°33' 50"에 위치해 있다. 목포와의 154km, 부산과는 304km, 일본 대마도와는 255.1km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3) 개석(開析): 풍화 작용이나 침식 작용으로 지표의 일부가 깎이어 여러 가지 새로운 지형으로 바뀌는 일.

4) 단애 :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절애

5) 해식대 : 해안의 바위가 해식으로 밀려나고, 그 앞면의 수면 아래에 이루어진 평탄한 지형. 썰물 때는 드러나고 밀물 때는 물 밑으로 들어감

제주에 대한 인식이 섬이라는 단순논리로 받아 들여졌으나,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대외적인 인식제고와 더불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형상은 북동동~남서서 방향으로 가로놓인 타원형으로 제주도의 총면적은 1,845.92km²(2000. 12. 31 현재)로 8개의 유인도와 55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 전체면적 99,434.26km²의 1.85%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도로서 가장 넓은 경상북도의 1/10, 우리도 다음으로 작은 충청북도의 1/4에 해당된다. 제주도의 기온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날씨변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기후 조건은 한서의 차가 적은 난대성 해양성 기후이고 2000년도 제주도의 연평균 기온은 제주시 지역이 15.7℃, 서귀포 지역이 17.2℃, 성산포 지역이 15.3℃, 고산지역이 15.1℃로 지난 71년도부터 30년간에도 평균기온 15.6℃보다 평균 0.2℃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8년도 16.8℃, 1999년 동안 15.9℃로 기온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비가 오는 지역으로서 2000년도 연평균강수량은 1,456.9mm(제주시 기준)이며, 그중에서 80%가 4월에서 9월에 내린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강풍, 다풍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바람이 그칠 날이 없어서 2000년도 연평균 풍향풍속은 고산지역이 7.2%로 가장 강하며, 제주시 3.4%, 성산포 3.2%, 서귀포 2.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제주도는 지리적인 위치관계상 한반도와는 상이한 기후조건과 식생구조를 볼 수 있다. 또한 화산도로서 지형과 지질이 육지부와는 양상을 달리하여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지닌다.

6) 제주도 환경정책과: 「2001 환경백서」, 제주도, 2001, p55~59

3. 돌 문화

1. 돌 문화의 역사

제주 사람들은 “돌에서 왔다가 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도에 유난히 돌이 많이 보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도가 화산도라는 것과 관련된다. 온 섬이 화산재와 자갈에서부터 큰 암석에 이르기까지의 크고 작은 화산 쇄설물로 덮힌 데다가 주민들이 그 암석을 생활재료로 곳곳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돌이 많은 섬에서 살아온 제주사람들이 이뤄낸 문화는 돌 문화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선사문화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선사시대의 제주사람들의 생활모습은 그들이 구축해 놓은 돌 문화 유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선사시대 무덤 양식 중 대표적인 것은 지석묘이다. 그 중에도 제주 지방에는 제주시 오라동, 용담동 등지에 도합 60여기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석묘 즉, ‘고인돌’<사진1>은 고대인의 무덤으로 제주특유의 현무암괴석을 지상에 받친 것으로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1> 지석묘(제주자연사박물관)

또한 제주도 지식묘의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석기로 이루어진 돌그릇, 돌칼, 돌화살, 돌도끼 등이 그 당시 문화의 모습도 돌 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⁷⁾‘선돌’(立石)<사진2>은 장대한 돌을 세워 성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과 마을의 액을 막는 구실로 세워지기도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분포된 거석(巨石)⁸⁾숭배의 흔적물이다.



<사진 2> 가파리 선돌

7) 玄吉彦: 「제주와 돌(石)의 문화」, 문화산책, p176~179

8) 거석숭배(巨石崇拜): 특정한 타계관(他界觀)·풍양관념(豊穰觀念) 등을 배경으로 하여 거석기념물을 건립하는 풍습이 일종의 종교적 복합체로서 전파된 것.

사면의 바다라는 자연환경은 해적 및 외세 침입이 잦아 제주의 선인들은 외세에 침략으로부터 섬을 보호하기 위해 도민들이 모두 동원되어 성을 쌓아야만 했다. 그 대표적인 흔적이 ‘환해장성’<사진3>이다. ‘환해장성’은 고려원종11년(1270년) 고여림이 진도에 웅거한 삼별초가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선 삼백리에 걸쳐 쌓은 것인데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현재는 성의 일부만 남아있다.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통신수단의 하나로 오름에 설치된 ‘봉수대’⁹⁾의 일종인 ‘연대’<사진4>는 제주도의 해안선 곳곳에서 돌로 쌓아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연대는 돌을 층층히 쌓아 횡력(橫力)을 견딜 수 있도록 축석하였고 연대 위에는 화덕자리가 있다. 이렇듯 제주사람들은 생존과 직결되는 돌로 성을 쌓으면서 제주의 역사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한데 어울려 지금의 제주가 가능했던 것이다.



<사진 3> 환해장성(성산읍 온평리)



<사진 4> 협자연대(성산읍 고성리)

9) 봉수대 : 멀리 바라보기 좋은 높은 산봉우리에 설치하여 밤에는 횃불[烽]을 피워, 낮에는 연기[燧]를 올려 외적이 침입하거나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나라의 위급한 소식을 중앙에 전하였다. 봉화는 밤에 피우는 횃불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낮에 올리는 연기까지도 포함해서 흔히 ‘봉화’라 통칭하였으므로 봉수대의 이름도 봉화의 ‘봉(烽)’ 자를 따서 여러 가지로 불렸다.

2. 돌 문화와 생활

제주도의 거칠고 모진 지리 환경 여건을 이겨내고 흘러간 역사의 외풍을 돌을 이용해 이겨냈던 돌의 문화는 일상생활에서도 깊숙이 스며 있었다. 크고 작은 돌로 벽을 쌓은 견고한 집을 만들어 비바람과 눈보라를 이겨냈고, 일상생활의 용구들을 돌로 만들어 생활의 편익을 도모했던 것이다. 제주도의 초가<사진5,6>는 거의 전부가 돌로 이뤄졌는데 마당과 거릿길을 잇는 ‘올래’의 돌담을 ‘올담’<사진7>이라고 하며 바람을 막기 위해 돌담은 필수조건이었다. 제주의 돌담에는 틈이 있는데 거센 바람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올래’에는 ‘정주석’<사진8>을 만들어 ‘정낭’을 끼워 놓고 대문의 구실을 했을 뿐 아니라, 도둑 없고 대문 없고 거지 없는 삼무(三無)의 풍속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정주목’ 재료는 역시 돌이다. ‘정주목’은 ‘정낭’을 걸치기 위한 것으로서 돌에 구멍을 뚫은 것이다. 처음에는 나무를 사용했지만 강한 비바람으로 인하여 돌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10)



<사진 5> 초가(성읍 민속마을)



<사진 6> 초가(성읍 민속마을)



<사진 7> 올담(성읍 민속마을)



<사진 8> 정주목과 정낭(성읍 민속마을)

10) 북제주군 문화공보실; 「내고장 전통문화」, 북제주군, 1982, p162~163

‘정낭’의 유래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고 집안에 사람이 있고 없음을 표시하는 역할도 했다. 또한 돌을 이용해 온돌을 만들었고 집안에서 사용되는 돌의 쓰임새를 보면 식물성 기름을 짜는 틀인 ‘붕애기’<사진9>는 조선시대 18세기에 사용되었으며 재료는 모두 현무암이다. 뿐 만 아니라 돌은 농산물을 가공하는 도정기구로도 이용했다. 곡물을 찧던 도구들인 ‘남방애(나무)’나 ‘돌방애(돌)’<사진10>도 같은 역할을 한다. 나무나 돌을 둥그렇게 파내고 그 가운데를 구멍을 파내어 만든다. 구멍이 만들어진 이유는 곡물이 밖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돌로 만든 화로인 ‘붕덕’<사진11>은 위가 넓고 밑은 약간 좁게 장방형으로 돌을 다듬어 정으로 파내어 만들어졌다. 한편 물이 없어 물레방아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마다 군데군데 ‘연자매’<사진12>를 만들어 놓아야 했는데 곡식의 탈곡 도정 제분을 하는 기구로 ‘몰방아’라고 불렀던 ‘연자매’는 소보다는 말이 많아 말이 끌었다. 11)



<사진 9> 붕애기(제주대학교)



<사진 10> 돌방애(제주대학교)



<사진 11> 붕덕(국립제주박물관)



<사진 12> 연자매(성읍 민속마을)

11) 玄化珍; 「탐라의 슬기」, 동양산업사, 1987, p100~103

이것을 만들고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관행이 생겨나기도 했다. 농사를 짓는데도 석재 농기구가 이용되었다. 돌이 지천으로 깔린 제주도의 밭은 농사를 지어도 흙이 바람에 날아가기 때문에 이를 밟아줘야만 했는데 여기에는 말과 소를 이용해 밟기도 했지만 ‘돌테’<사진13>라는 농기구를 이용해 흙을 다지기도 했다. 부락 청년들이 힘을 겨루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듬돌’<사진14>은 그 마을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화합적 차원의 돌이다. 제주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검붉은색의 돌담<사진15,16>은 고려 때 ‘김구(金丘, 1211-1278)목사’의 「지보집(止漕集)」에 돌담을 쌓은 기록이 있으며, 밭의 경계선을 두기 위해 곳곳에 널려있는 돌을 이용하여 쌓았다. 돌을 외줄로 올려놓아 위태로워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돌과 돌 사이로 바람이 새나가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돌담은 제주도의 경관의 일부이면서 상당히 과학적인 것이다.¹²⁾



<사진 9> 붕애기(제주대학교)



<사진 10> 돌방에(제주대학교)



<사진 11> 붕덕(국립제주박물관)



<사진 12> 연자매(성읍 민속마을)

12) 제주도; 「제주도 통권 103호」, 제주도, 1999, p177

이것을 만들고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관행이 생겨나기도 했다. 농사를 짓는데도 석재 농기구가 이용되었다. 돌이 지천으로 깔린 제주의 밭은 농사를 지어도 흙이 바람에 날아가기 때문에 이를 밟아줘야만 했는데 여기에는 말과 소를 이용해 밟기도 했지만 ‘돌테’<사진13>라는 농기구를 이용해 흙을 다지기도 했다. 부락 청년들이 힘을 겨루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듬돌’<사진14>은 그 마을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화합적 차원의 돌이다. 제주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검붉은색의 돌담<사진15,16>은 고려 때 ‘김구(金丘, 1211-1278)목사’의 「지보집(止漕集)」에 돌담을 쌓은 기록이 있으며, 밭의 경계선을 두기 위해 곳곳에 널려있는 돌을 이용하여 쌓았다. 돌을 외줄로 올려놓아 위태로워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돌과 돌 사이로 바람이 새나가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돌담은 제주도의 경관의 일부이면서 상당히 과학적인 것이다.¹³⁾



<사진 13> 돌테(제주대학교)



<사진 14> 듨돌(국립제주박물관)



<사진 15> 돌담(성산읍)



<사진 16> 돌담(애월읍)

13) 제주도; 「제주도 통권 103호」, 제주도, 1999, p177

3. 돌 문화와 신앙

자연과의 싸움을 통하여 생존을 확보하는 일은 신앙을 동반하지 않고는 어렵다. 불모의 자연을 개척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힘에 의지하지만 그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제주사람들은 그런 점을 인식하였기에, 신앙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려 했다. 제주도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돌하르방’, ‘방사탑’, 그리고 조상의 묘소를 지키기 위한 ‘산담’과 ‘동자석’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현실에 대처하는 또 다른 일면을 볼 수 있다.

1) 돌하르방

‘돌하르방’<사진17,18>의 의미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성문 앞에서 부리부리한 눈으로 두 손을 모으고 의젓한 자세를 하면서 고을 백성들의 평안을 지키고, 짓궂은 마귀나 악귀의 침입을 막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주술적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애를 못 낳는 여인이 아무도 몰래 ‘돌하르방’의 코를 쪼아서 물에 타먹으면 애를 가질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돌하르방’은 위치 표시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고을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세워졌거나 고을의 존엄성을 드러내기 위한 역할도 하였다.¹⁴⁾



<사진 17> 돌하르방(제주대학교 입구)



<사진 18> 돌하르방(목석원)

14) 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제주문화, 1993, p219~253

2)방사탑

‘방사탑’<사진19,20>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살과 부정을 막기 위해 마을의 경계나 기가 허한 곳에 돌을 쌓아놓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탑 위에는 새나 사람 등의 형태를 올려놓아 재앙을 쫓아 버리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탑을 쌓아올릴 때는 그 속에 밥주걱이나 술을 묻는데, 밥주걱은 외부의 재물을 마을 안으로 담아들이라는 의미이고, 술을 묻는 것은 뜨거운 불에도 끄덕 없는 술처럼 어떠한 재난에도 이겨내고자 하는 바람에서였다.¹⁵⁾



<사진 19> 방사탑(이호동)



<사진 20> 방사탑(산굼부리)

3)산담, 동자석

현상에서의 황폐한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조상의 음덕(陰德)을 통해 가능하다는 데 이른다. 조상의 묘소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곤궁한 살림 중에서도 이렇게 ‘산담’<사진21>을 치장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신앙이면서 자손으로서 자신을 주체하려는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더불어 무덤 앞에 한 쌍으로 이루어진 석상인 ‘동자석’<사진22>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터를 지키는 지신이라 말할 수 있다.



<사진 21> 산담(산굼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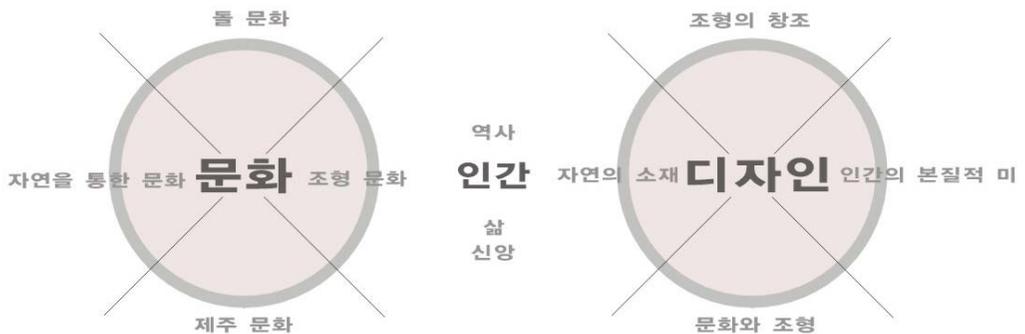


<사진 22> 동자석(산굼부리)

15) 강창언; 「제주민속유적」, 제주도, 1997, p157~165

2. 문화와 조형디자인

디자인은 인간이 태어나 삶을 이루면서 행위 되어졌던 모든 산물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을 통한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의·식·주 전반에 어떠한 형태로든 만들어졌다. 디자인이란 계획을 일컫지만 인간의 본질적 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행위에서 성장하였다. 제주도의 문화에서도 디자인은 제주사람들의 역사와 삶, 신앙을 통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왔던 것이다. 제주도의 뛰어난 조형문화 전반에서 이루어진 디자인의 요소는 삶의 작은 소품에서 정신적인 믿음의 ‘돌하르방’, ‘동자석’등의 조형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돌’이라는 자연소재에서 조형성을 이끌어낸 제주사람들의 소박한 마음처럼 척박한 제주의 역사 속에 뛰어난 조형문화의 전통을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옛 것의 표피적인 모방이나 답습이 아니라, 이처럼 독특한 ‘돌 문화’의 섬, 제주도의 우수하고 독특한 문화와 조형의 본질을 재발견,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제주도의 고유한 ‘돌 문화’를 통해 확인 된 우수한 조형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로운 조형을 창조하여 더불어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재창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표 3> 문화와 조형디자인

5. 동자석의 조형디자인 연구

1. 동자석의 유래

‘동자석’은 무덤 앞 좌, 우편에 마주보거나 나란히 세워져 있는 석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터를 지키는 지신이라 말할 수 있다. ‘동자석’이란 ‘동자석’, ‘지신’, ‘자석’, ‘돌코냉이’ 등 지역에 따라 명칭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자석’이라 불린다. 그 유래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조선시대 왕실무덤에 세워진 ‘문신석’(文臣石)과 ‘무신석’(武臣石)¹⁶⁾의 기능이 민간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지금의 ‘망주석’¹⁷⁾ 또는 ‘동자석’으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남방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거석석상문화(巨石石像文化)는 북방농경문화와 만나면서 특별한 조형양식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만나는 도서지역은 돌하르방과 같은 석상문화를 잉태하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¹⁸⁾ 즉, 돌하르방의 유래와 연관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제주도 ‘돌하르방’이 조선시대에 성문 앞에 세워졌다는 기록과 석상의 얼굴이 거의 남방계 얼굴의 특징인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가 강조되어진 부분이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민간인들에게는 신앙적 믿음 때문에 낙태가 잘 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녀자들이 ‘동자석’의 코 부위를 쪼개어다가 삶아 먹으면 아들을 잉태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더불어 무덤을 이장할 때 ‘동자석’을 땅에 묻고 가는 관습이 있는데 일제시대 및 최근까지 제주도가 개발되어지면서 출토된 많은 ‘동자석’이 외부로 유출되고 관리가 되지 않은 점과 ‘동자석’의 유래에 대하여 밝혀진 연구가 없음이 아쉽다.

16) 문신석, 무신석 : 능(陵) 앞에 세우는, 문관과 무관의 형상으로 된 돌

17) 망주석(望柱石): 무덤 앞에 세우는, 여덟 모로 깎은 한 쌍의 돌 기둥.

18) 김병모: 「한국인의 발자취」, 집문관, 1985

2. 동자석의 배치와 기능

‘동자석’은 묘의 앞에 좌우로 한 쌍이 놓여졌으며 권력과 부에 따라 ‘문신석’, ‘무신석’, ‘망주석’ 한 쌍이 있는 것과 ‘망주석’과 있는 것, ‘동자석’만 있는 것으로 배치되었다.



관료나 부유한 층의 묘에는 망주석(한쌍)과 문신석과 무신석 동자석(한쌍)이 양쪽 좌, 우에 배치되어 있음



망주석(한쌍)과 동자석(한쌍)이 양쪽 좌, 우에 배치되어 있는 예



동자석(한쌍)이 양쪽 좌, 우에 배치되어 있는 예

조상을 숭배하고 주술적 의의인 ‘동자석’은 제주도 전 지역의 무덤에서 간혹 보이는데 ‘동자석’이 있는 무덤 몇 십 기를 종합해 본 바로는 규모가 꽤 큰 무덤에 동자석이 세워졌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벼슬이 있고 부유한 층의 사람의 무덤에 비석과 함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동자석’과 ‘문·무신석’, ‘망주석’을 나란히 세워서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보호하며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원도 의미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불교에서는 동자(童子)의 의미를 출가(出家)하기 이전의 20세미만의 어린아이를 지칭한다. 또한 예배와 제사의 주대상 인물을 보좌하는 존재로 기능을 한 것처럼 ‘동자석’은 그 무덤의 주인 영혼을 위로하거나 묘지의 수호신 기능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3. 동자석의 분류



‘동자석’을 역사적, 학술적으로 분류 된 것은 없으나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동자석을 보면 크게 ‘남성과 여성’, ‘수호신 동자’, ‘시중꾼 동자’, ‘기타 동자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남성과 여성(표정과 손동작에서 보여지는 성적 구분을 갖고 있음)



<사진 24> 동자석(세종돌박물관 자료)

2) 수호신 동자석(주인을 숭배하고 지키듯이 두 손을 모으고 무서운 표정을 함)



수호신 동자석의 예

<사진 25> 동자석(수호신)

3)시중꾼 동자석(두 손에 꽃, 순가락, 부채, 술등을 들고 있음)



시중꾼 동자석의 예

<사진 26> 동자석(시중꾼)

4)기타 동자석(특정한 표현이 없고 주술적인 형태로 이루어짐)



기타 동자석의 예

<사진 27> 동자석(기타)

4. 동자석의 조형적 분석

낮은 키와, 자연석을 적당히 다듬어 세부적인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고, 그 표정이 친진난만한 아이 같은 표정으로 ‘동자석’이라 불리게 되었다. ‘동자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죽은 자의 시중을 들기 위해 살았을 때 좋아했던 술, 떡 같은 음식물이나 꽃, 창과 같은 상징물 등을 들고있는 것과 해탈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웃으며 서 있는 것, 언제나 술잔에 술을 따르는 모습인 것, 무릎을 꿇고 앉아 공부하는 것 등 너무나 다양하다. 다산을 기원하고 번창을 상징하는 아기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문신을 뜻하는 홀¹⁹, 장수를 표현하는 창 따위를 조각하여 후세들의 덕을 기원하기도 한다.



<표 4> 동자석의 조형분석

19) 홀(笏): 길이 약 60cm, 나비 약 6cm가 되도록 얇팍하고 길쭉하게 만든 것으로 벼슬아치가 조복(朝服)·제복(祭服)·공복(公服) 등에 갖추어 사용하였다.

‘동자석’은 크게 얼굴부분과 몸통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동자석’의 크기는 키가 아주 작은 것은 25cm에서 큰 것은 75cm까지의 다양한 크기로 되어있다. 앞부분의 표현을 중시하고 옆과 뒤는 생략된 표현이 많았다. 보통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녀로 구성된 것도 보여진다. 조형방법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의 몸의 구조처럼 머리가 몸보다 과장되게 표현되었고 예술성보다는 솔직하고 소박한 모습의 해학적 요소가 많이 보인다. ‘동자석’의 조형적 표현방법은 예술적 조각의 형태가 아닌 민간신앙적 개념의 조형 개발이 되어 모습이 생략되고 비례나 특정 부분의 표현 등 사실적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았다.

1)얼굴부분 형태 분석

‘동자석’의 얼굴은 우선 동그란 얼굴을 하고 있으면 돌하르방과 달리 병거지모자는 거의 쓰고있지 않았다. 눈은 커다랗고 정면을 응시하며 눈썹과 눈동자가 조각되어진 것도 있으며 입은 미소짓는 입과 근엄한 표정을 하고자 했으나 해학적이고 친근한 모습의 입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 얼굴형태를 분석해보면 크게 부리부리한 눈으로 주인을 지키는 수호신의 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과 기하학적으로 눈은 생략되어진 것, 해학적으로 절로 웃음이 나오는 소박하고 엉뚱한 것과 얼굴형태가 거의 생략된 것도 있었다. 예부터 코에 대한 관심은 많았다고 본다. 코는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지고 인간성을 상징한다.²⁰⁾ ‘동자석’에서 나타난 코의 모양은 다들 크고 길게 강조하였으나 미신처럼 아들을 바라는 이들이 코를 쪼개어 가는 바람에 코의 부분이 훼손이 아주 심하였다. 귀의 모양은 아주 크며 관상에서 크고 단단한 귀는 장수와 귀하게 됨을 상징해서인지 귀를 크게 하여 과장되게 표현된 것이 많았다.

20) 조용진; 「우리몸과 미술」, 사계절, 2001, p125



<표 5> 동자석의 얼굴 분석

3) 몸통부분 형태 분석

‘동자석’의 몸통부분은 직사각형과 하부로 퍼지는 사다리꼴 형태로 하반신의 모습의 다리의 표현은 없다. 손의 길이가 과장되게 길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주인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것은 손에 무언가 들고있는 형태가 많았다. 손가락의 표현이 섬세한 것과 둥글고 대충 있는 듯 하게 표현한 것도 많았다. 뒷모습에서는 머리의 땡기머리를 표현한 것도 있었다.



동자석의 몸통부분

<사진 28> 동자석(몸통 부분)

6. 조형 제작 연구

1. DIRECTION



<표 6> DIRECTION

조형 제작에 앞서 ‘동자석’ 조형 제작 방향을 보면 기존의 ‘동자석’이 갖고있는 문화적, 형태적, 재료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과거의 ‘동자석’은 무덤 앞을 지키는 민간신앙적인 의미로 기능을 갖고있으나 그 소박한 의미와 조형적 가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금, 현대적 이미지와 재료의 다양성으로 무덤 앞이 아닌 생활 곳곳에서, 독특한 문화상품으로 기획되어지는 방향을 갖고자 한다.

2. CONCEPT

‘동자석’의 표정을 과거에는 숭배하는 개념으로 표현했으나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섭고 선이나 조형적 서투름이 있었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지만 좀더 친근하고 동자다운 얼굴 형태와 표정을 표현하여 귀여움과 친밀함을 주고 어깨와 팔의 과장된 표현을 정리하고 기물을 넣어 그 의미를 알리며 전체적인 이미지를 일원화 시켜 현대적인 이미지를 주고자 했다. 머리부분은 실제의 ‘동자석’의 좋은 형태의 얼굴을 재현하고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이미지를 조화하여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기능성에서도 무덤 앞에만 놓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나 여러 공간에서 인테리어 소품, 또는 조형물로 ‘동자석’의 좋은 의미를 널리 알리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3. IDEATION

CONCEPT SKETCH - A



동자석의 현대적 개념의 새로운 창출을 위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셋트화하거나 기존의 동자석의 특징인 둥근형태의 얼굴을 만들고 표정은 동자석의 어린이의 표정을 서정적이고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CONCEPT SKETCH - B



동자석의 기존의 형태를 기본으로 눈과 코, 입의 변화를 조금씩 변형하고 어깨와 팔, 손의 변화와 정리를 해보았다. 얼굴의 각도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동자의 귀여운 표정을 주고 하부에 단을 만들어 SKETCH를 해보았다.



원본이미지



A



B



C



D



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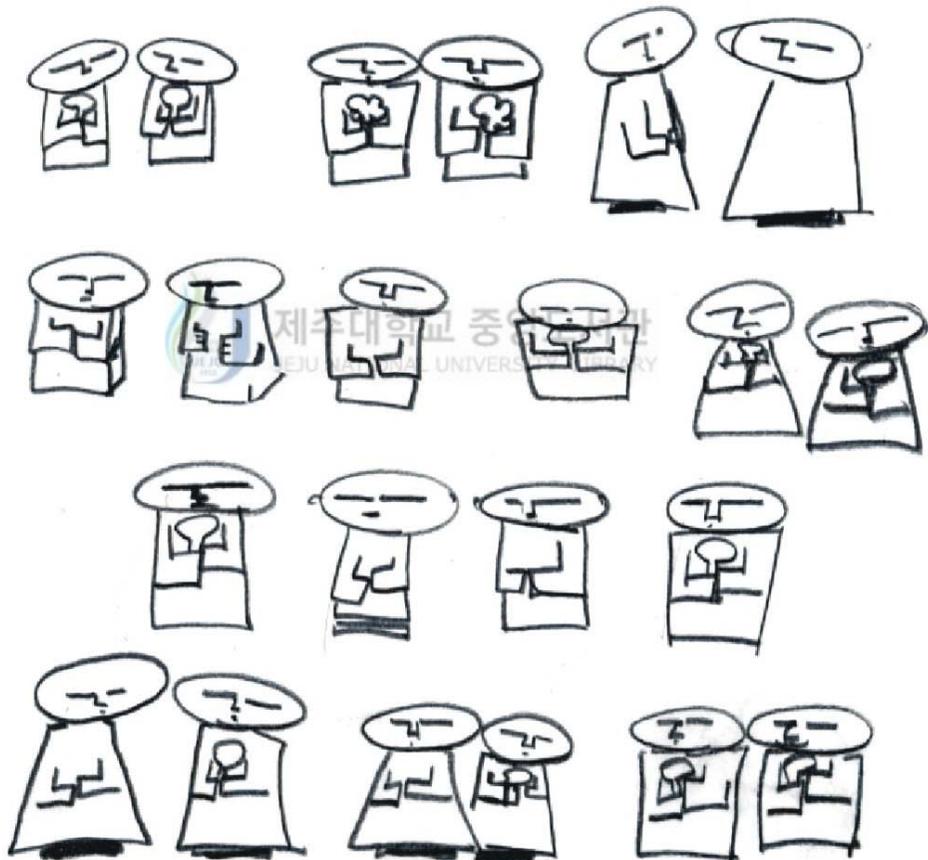


G

CONCEPT SKETCH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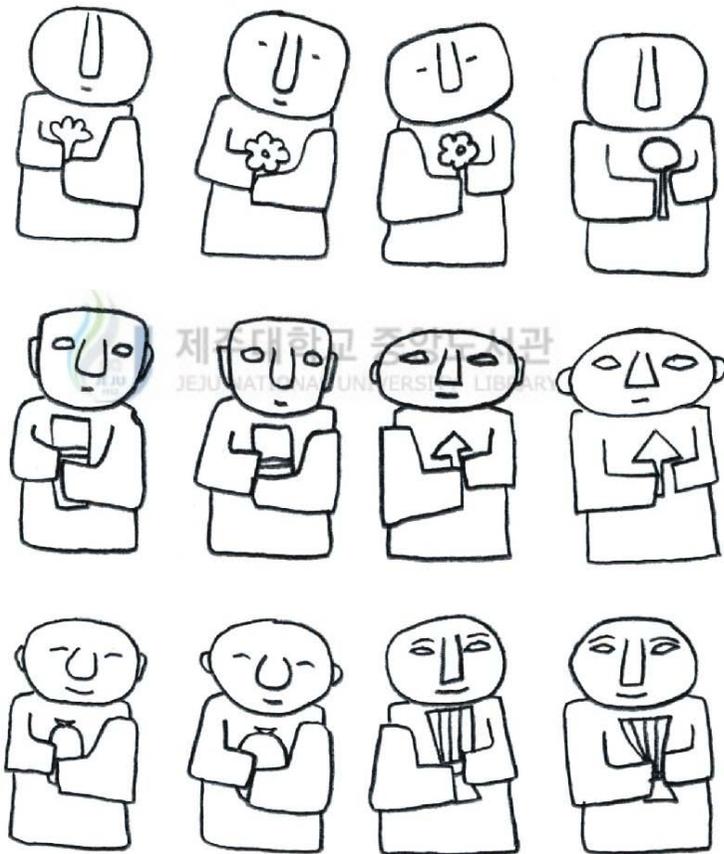
CONCEPT SKETCH-A,B에서 검토한 결과 동자석의 가족적 방법의 표현보다는 남.녀 혹은 동자석의 셋트적 개념에 CONCEPT방향이 맞추고 머리는 둥근 형태를 하반신이 생략되어진 몸통부분은 사다리꼴이나 사각형태의 방향으로 기물표현은 숟가락, 꽃, 부채, 술병, 창, 떡을 현대화하여 강조 표현하였다.



CONCEPT SKETCH - D



동자석의 머리와 몸통부분 형태를 결정하고 표정, 기물, 어깨선, 몸통의 비례 디테일을 점검해 보았다. 얼굴의 표정은 기존의 동자석의 특징을 살리고 몸통 부분과 기물을 조화롭게 디자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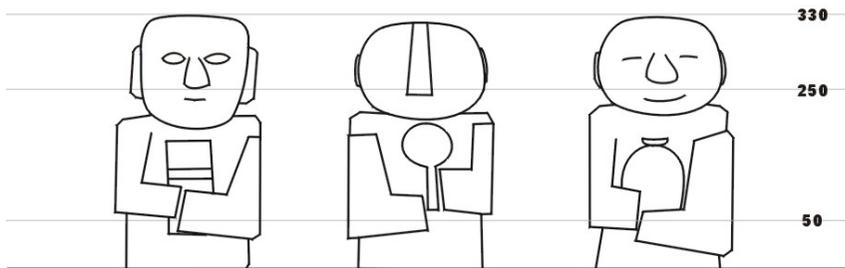


4. DRAWING

DRAWING



CONCEPT SKETCH에서 결정된 안을 컴퓨터로 DRAWING을 하여 실제적 제작에 앞서 6가지의 모델을 확정짓고 표정과 전체의 비례를 검토하고 치수와 디자인을 확정지었다.



단위:mm

5. FINAL WORK

앞서 CONCEPT SKETCH와 DRAWING을 통해 결정 된 6가지의 ‘꽃을 든 동자석’, ‘술가락을 든 동자석’, ‘술병을 든 동자석’, ‘떡을 든 동자석’, ‘부채를 든 동자석’, ‘창을 든 동자석’ 모델을 제작하였다. 얼굴부분은 기존의 ‘동자석’ 중 좋은 형태의 얼굴 형상을 재현하고 기물의 성격과 얼굴 형태와 표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얼굴과 표정을 몸통부분과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도록 하였다. 몸통부분은 직사각형과 하단부로 퍼지는 사다리꼴모양으로 전체 골격을 잡고 어깨와 팔 부분은 입체적인 효과를 위해 단차를 주고 전체적 비례를 잡았다. 기물의 표현은 상징적으로 도안된 것을 나타냈고 손은 손가락을 생략하여 전체적인 선의 느낌을 통일하였다. 전체적인 조형의 색상은 자연의 돌 색상을 선정하여 현대적인 이미지와 고유의 돌 색상을 재현해 보았다. 전반적인 조형은 인테리어 소품 또는 실외정원에 작은 조형으로 더불어 무덤에 한 쌍의 개념이 아닌 여러 개의 세트의 성격으로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부채를 든
동자석



창을 든
동자석



꽃을 든
동자석



술가락을 든
동자석



술병을 든
동자석



떡을 든
동자석

동자석 MODEL

FINAL WORK



부채를 든 동자석



창을 든 동자석

FINAL WORK



꽃을 든 동자석



손가락을 든 동자석

FINAL WORK



술병을 든 동자석



떡을 든 동자석

7. 결 론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한국최대의 섬이다. 아름다운 바다와 한라산, 수많은 ‘오름’들과 기괴한 암석, 돌하르방이라는 독특한 문화유산 등, 제주도는 무한한 자원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제주도가 화산섬이라는 지형은 수많은 기괴한 암석과 지역 곳곳마다 지천으로 돌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상 제주도는 독특한 돌 문화를 이루게 되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물인 ‘돌하르방’과 ‘동자석’은 제주도의 대표적 돌문화의 상징물로서 역사적으로나 조형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본다. 그 중 제주도만의 독특한 장례문화인 무덤을 지키는 ‘동자석’은 그 조형성이 독특하고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조형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의 돌의 문화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돌을 제주사람들의 척박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여 왔고 어떠한 신앙을 가졌으며, ‘동자석’의 기능과 조형연구를 통해서 그 가치와 가능성을 다시금 새겨보고자 하였다. 제주도의 ‘동자석’은 무덤 앞 좌, 우편에 마주보거나 나란히 세워져 있는 석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터를 지키는 지신이다. 동자를 표현한 석상은 불교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석상이지만 제주도에서처럼 무덤을 지키는 기능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인 것이다. ‘동자석’의 조형 제작 방향에 있어 전통적인 ‘동자석’이 갖고있는 문화적, 형태적, 재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류해보았고 연구를 통해 문화의 현대적인 해석과 디자인의 방법론을 대입하여 결과를 유출해 보고자 하였다. 모델제작의 방향은 ‘동자석’의 표정을 과거에는 숭배하는 개념으로 표현한 것을 좀더 서정적이며 친근하고 동자다운 얼굴을 재현하고 머리부분은 실제의 ‘동자석’의 좋은 형태의 얼굴과 각각의 기물의 성격과 일치하는 표정과 형태의 것으로 제작하고 몸통부분은 기존 ‘동자석’의 어깨와 팔의 과장된 표현을 정리하고 좋은 기원과 성격을 갖는 여러 가지의 기물을 넣어 그 의미를 공유하였다. 전반적인 모델의 크기를 기존의 ‘동자석’보다는 작은 크기로 제작하였고 앞으로 지금의 모델이 준 대량생산 체제로

제작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실리콘 성형을 하기 쉽고 무리가 없는 크기로 제작이 되었다. 또한 한 쌍이 아닌 세트의 개념으로 수를 달리할 수도 있게 하였고 나아가 인테리어 오브제의 개념으로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전통문화의 답습이 아닌 현대적인 이미지와 문화를 반영하고 발전시켜 새롭고 독특한 제주도만의 문화를 보급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즉, 가장 제주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며 또한 세계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의 돌 문화를 통해 이루어진 ‘동자석’을 전통문화의 계승이 아닌 현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며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하나의 기능이 아닌 다방면의 새로운 문화 조형물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제주도 돌 문화와 조형성을 연구하여 우리 문화의 좋은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알리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이문원, 손인석; 「제주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섬일까」, 도서출판 춘광, 1983

제주도 환경정책과; 「2001 환경백서」, 제주도, 2001

玄吉彦; 「제주와 돌(石)의 문화」, 문화산책

북제주군 문화공보실; 「내고장 전통문화」, 북제주군, 1982

玄化珍; 「탐라의 슬기」, 동양산업사, 1987



제주도; 「제주도 통권 103호」, 제주도, 1999

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제주문화, 1993

강창언; 「제주민속유적」, 제주도, 1997

김병모; 「한국인의 발자취」, 집문관, 1985

조용진; 「우리몸과 미술」, 사계절, 2001